

現代人の 倫理的 性格

倫理의 두 가지 典型 (1)

金午星

普通 常識이 말하는 倫理, 또는 教科書的인 倫理學者들이 規定해노은 倫理는 한 개의 義務意識을 基礎로 하고 있다. 이 義務意識은 어떤 權利의 享受에서 오거나 또는 自由選擇에서 오는 義務觀念이 아니요, 어떤 不可侵의 權威에 強制되는 義務意識인 것이다. 此種의 倫理는 一定한 德目을 세워가지고 人間의 모든 行爲를 強制한다. 三綱五倫, 知仁勇, 仁義禮智信, 忠孝 等等 이러한 德目은 行爲者가 選擇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權威로서 모든 人間의 行爲에 強制되는 것이다. 그리고 德目에 依(한) 行爲는 모든 人間이 어떤 權利를 爲하여 行해지는 것이 아니고, 權利와는 劃然히 分離되어 있는 人間의 偏務的인 行爲인 것이다. 德目은 한 개의 神聖不可侵의 傳統力을 가지고 모든 人間의 行爲를 強制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義務意識을 父母와 教師와 長者들에게서 骨髓에 사모치도록 訓育해 바든 것이다.

이러한 道德的 強制를 베크손[베르그송]은 『閉鎖된 社會』의 倫理라고 指摘했다. 『閉鎖된 社會』의 倫理는 習慣에서 지여진다. 그는 社會를 『諸習慣의 一體系』라고 定議했다. 倫理는 社會生活의 必要에서 成立되는 것이니, 서로 支持하며 相倚하며 한 개의 有機的 生活을 論駁하는 가운데서 習慣이 지여지며, 이러한 習慣에서 倫理가 成立된다는 것이다. 普通 사람들은 社會를 한 有機體로서 보는 것이나, 가튼 有機體 가운데서도 蜂蟻의 社會와 人間社會가 區別되는 것은 前者에 잇서는 本能이 必然的 法則에 代身되나, 後者에 잇서는 習慣이 代身되는 것이다. 習慣은 한 개의 潛在本能과 가튼 것으로 그 自身 必然的 法則 즉 外部的 強制力을 가지는 것이나, 그러나 習慣을 單히 自然的, 必然的인 것에 歸納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習慣은 叡智의 힘에 依하여 항상 豊富해지며 또 變更되는 것임으로써이다. 이런 點에서 人間社會는 自然的, 不變的인 法則에 束縛되어 잇는 蜂蟻의 社會와는 區別되는 進歩와 變化가 잇는 것이다.

道德的 強制란 이와 가티 社會生活에서 지여지는 諸習慣의 한 體系에 지내

지 안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가티 習慣은 本能과 가티 單히 自然的, 必然的 法則이 아니고, 항상 叡智에 依하여 豊富해지며 變更되는 것임으로, 『閉鎖된 社會』의 倫理는 單히 外部的 強制力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同時에 內部的 強制力을 意味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道德的 強制는 倫理가 모든 社會成員의 行爲를 強制하는 것만이 아니고, 또한 社會成員의 各自가 그 強制를 支持하며 거기에 服從하는 것을 일음이다. 그러지 안코는 倫理的 規範은 잇슬 망정 倫理的 感情 또는 道德的 情緒는 생길 수 업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個人이 倫理에 依據하고 倫理를 支持할 때 實狀은 아무런 強制도 壓迫도 느끼지 안는다. 오직 個人이 自己의 快樂이나 怠惰로 因하여 이 倫理的 習慣을 벗어나게 될 때 倫理는 한 개의 強制力을 가지고 個人을 壓迫하게 되는 것이다. 倫理는 社會成員들의 個個의 習慣이 連帶的으로 體系화된 것임으로 이 連帶를 벗어나려는 者에게는 必然的 強制力으로 느끼질 수박게 업는 것이다. 여기서 倫理는 冷嚴한 秋霜烈日과 가튼 權威를 가지게 된 것이다.

習慣이 만일 本能과 가튼 것이라면 倫理는 아무런 強制力도 갖지 못한다. 蜂蟻의 社會에는 嚴格한 意味의 倫理的 秩序가 있다. 그들의 勞働에는 一絲不亂한 規律이 잇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倫理的 秩序를 強制的인 것으로 느끼지 못한다. 왜-그러냐 하면 그들은 그것을 強制로서 느낄만한 知能이 업스며 또 그것을 벗어나날 自由도 업는 까닭이다. 그들은 오직 한 개의 必然的인 事實로서 本能的으로 움죽일 뿐이다. 그러므로 『自由 업는 者에게는 強制力을 느끼지 못한다. 習慣은 單히 本能이 아니고 叡智的 自由를 包含하고 잇슴으로, 倫理의 온갓 格率이 強制的인 것을 느끼면서도 거기에 依據하여 生命의 어떤 目的을 實現하려는 대서 『閉鎖된 社會』의 倫理, 즉 道德的 強制가 存立한다는 것이다.

베르손의 이러한 生命哲學的 解釋에서 우리는 어떠한 示唆를 바들 것인가? 첫째, 閉鎖된 社會의 倫理는 沒人間的인 倫理라는 것이다. 이 倫理는 항상 命令한다. 그런대 그 命令者는 人間이 아니고 社會다. 모든 道義家는 個人의 資格으로서가 아니고 항상 社會를 代表하는 資格으로서 命令한다. 그리고 이 命令은 어느 特定한 個性에 向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人間에 向하여 行해지는 것이다. 이 倫理의 格率 미테서는 人間은 有機體의 한 細胞이며 人間性은 社會性의 한 現象에 不過한 것이다.